

피플, 걸그룹 에스파 '이머징 아티스트'



▲ 에스파.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 (aespa)가 미국 피플지가 선정한 '이머징 아티스트'에 뽑혔다.

피플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1년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재능 있는 신홍아티스트' 30팀 중 '에스파'를 가장 먼저 거명했다.

피플지는 에스파에 대해 "빠른 속도로 정상에 오르고 있는 K팝 걸그룹"이라며 "데뷔곡 '블랙 맘바 (Black Mamba)'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역사상 가장 빠르게 조회수 1억부를 달성한 K팝 그룹 데뷔 뮤직비디오"라고 소개했다.

또한 "에스파는 '데이즈드 코리아(Dazed Korea)' 3월호 표지를 장식했고, 지방시의 새 앰버서더로서 패션계에도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파는 지난해 데뷔 싱글 '블랙 맘바'로 역대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1억부 신기록을 세웠다. 세계 95개국 음원 차트 진입,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 K팝 아티스트 데뷔곡 최고 순위 등극, 중국 QQ뮤직 한국 차트 2020년 데뷔 걸그룹 최장 1위 기록 등 신인으로서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방송인 레노, 한국인 조롱 사과



▲ 레노. 사진=페이스북(제이 레노)

한국의 식문화를 조롱해온 미국의 유명 방송 진행자 겸 코미디언 제이 레노(70)가 과거 발언을 "분명한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지난 24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레노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미디어 감시단체 '미디어 액션 네트워크 (MANA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이 했던 일련의 문제가 있는 발언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레노는 "마음 속으로는 잘못된 줄 알고 있었다. 내가 저지른 분명한 잘못에 사과한다."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레노는 2019년 유명 프로듀서인 사이먼 코웰이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한식당 메뉴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며 말한 바 있다. 또 2002년에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대표 김동성이 실격당하자 "집에 가서 개를 걷어차고 잡아먹어 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노는 2014년 텔레비전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고 코미디 배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마크 트웨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나, 특정 인종을 겨냥한 우스갯소리를 했다가 비난을 사기도 했다.

로제, 빌보드 싱글 차트 한국 여자솔로 최고 순위



▲ 블랙핑크 로제. 사진=YG엔터테인먼트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솔로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한국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고 순위인 70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로제의 첫 싱글 'R'의 타이틀곡 '온 더 그라운드' (On The Ground)

가 '핫 100'에서 70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 여자 솔로 가수가이 차트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6년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CL이 '리프트드' (Lifted)로 94위에 오른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온 더 그라운드'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솔로 가수가 두 글로벌 차트를 석권한 것은 지난해 9월 차트 신설 이래 처음이다.

'R'의 서브 타이틀곡인 '곤' (GONE)도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각각 29위, 17위에 올랐다.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는 세계 200여개 지역에서 수집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음원 판매) 수치를 기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전역의 인기곡 순위를 낸다.

숫자퍼즐 정답								
9	8	4	1	2	5	6	3	7
5	7	2	3	8	6	1	9	4
1	3	6	4	9	7	5	8	2
8	9	1	5	7	2	4	6	3
6	5	3	8	1	4	7	2	9
2	4	7	6	3	9	8	1	5
7	1	8	9	4	3	2	5	6
3	2	5	7	6	1	9	4	8
4	6	9	2	5	8	3	7	1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